



이름 : 샬

외양뿐만 아니라 습성도 고양이와 매우 비슷하다.

좁은 틈에 끼어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여느 고양이과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차이점은 건조한 지역 출신인 고양이와 달리 한반도의 토착종이기 때문에 대체로 물을 싫어하지 않고 수영도 잘 하는 편이다.

따라서 주된 먹이 중 하나인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하천에서 어슬렁거리는 샬이 많다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샬은 가축으로 기르는 고양이와 형태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분류학 상으로는 과까지만 고양이과로 같고 서로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즉 샬은 약간 야생성 강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와는 다른 종이다. 역사적으로 현재의 고양이는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고 샬쟁이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동물이다.